

전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전국 주목

성과 공유대회...출범 6년 사각지대 해소 효과 특출 김지사 "최고 복지시책 자리잡길 기대...전국 확산"

전남도는 12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올해 출범 6년째를 맞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면서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잡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이웃의 어려움은 이웃이 살핀다'는 주제로 열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성과 공유대회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22개 시·군과 29개 읍·면·동 복지기동대원, 협력·협약 기관 등 1천여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복지기동대 활동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43명, 성과 평가 우수 시·군 시상, 대회사, 축하 공연, 시·군 특화 사업·우수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부대행사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위기돌 120번 ▲일상돌봄 홍보부스가 운영돼 지역 복지 서비스를 홍보했다.

성과 평가 결과, '희망의 호풍볼 달기, 불금(불을 밝히는 금요일)' 등 전기 관련 특화사업을 추진한 해남군이 대

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보성군이 최우수상, 순천시가 우수상, 진도군·함평군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김영록 지사는 "복지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복지기동대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활동에 보람을 느끼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대한민국 대표 복지시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정부에 적극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민선 7-8기 김영록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2019년 4월 출범했으며 현재 22개 시·군과 29개 읍·면·동에서 약 4천700여명의 대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출범 이후 6년간 취약계층 20만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불편 개선과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약 330억원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전남도를 대표하는 명품 복지시책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민간 협력 기반의 성공적 복지 사례로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사업에 선정됐으며 2025년엔 33억3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해 더욱 촘촘하고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전북도가 전남을 벤치마킹하며 올해 복지기동대 사업을 도입했고, 지난 5월엔 대구지역 김용관 국회의원이 전남을 방문하는 등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재정 기자



공공배달업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협력

광주시·경제단체·기관, 긴급 민생경제 회의

광주시가 '12·3 내란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경제에 숨을 불어넣는 데.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긴급 민생경제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회의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시 산하 공공기관 등 광주지역 경제·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말 특수가 사라져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카드 할인을 확대, 공공배달업 활성화 할인 프로모션 등 소비 진작 방안, 중소기업 수출 판로 확대 등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점심식사 직장 주변 음식점 이용하기 등 골목상권 살리기 캠페인도 모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비상대책회의 후 시청 접견실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지역경제 회생 방안 등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강 시장은 점유율 17%로 전국 모범이 된 광주공공배달업을 설명하고 금융권 확대 운영을 제안했다. 또 금융권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확대, 최근 개소한 산업은행 서남권투자금융센터에 대한 금융감독원 차원의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생과 지역 발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요청한 사항들을 최대한 챙겨 보겠다"고 답했다.

/변은진기자



12일 오후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2024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성과 공유대회'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 등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내년 광주시 본예산 26억원 감액

시의회 예결위, 7조6천43억원 규모 심의 의결 5·18대중교통비 무료 지원·광주FC 예산 부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광주시 내년도 본예산 7조6천43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각 예산안에 대해 세부 편성 내용을 조정했다. 올해 본예산 6조5천42억원 대비 7천1억원(10.1%) 늘어난 7조6천43억원 규모다.

당초 광주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

구액 7조6천69억원 보다 26억원 줄었다. 세출 예산 삭감액은 총 259억3천300만원이다.

주요 삭감 내용은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28억원 ▲광주관광 붐업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10억원 ▲제2순환도로 지산IC 진출입로 개설 시설비 등 10억원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개선 5억4천만원 ▲시민소통형 홍보매체 영상콘텐츠 제작 3억5천만원 ▲타

랑계 자전거 구입 3억원 등 126건이다.

반면,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5억4천만원 등 37건은 총 36억4천400만원 증액됐다.

5개 자치구 도로 개설이나 확충 예산 70억원(31건)은 예결위 심의를 거치며 추가됐다.

동구 서석교회 앞, 서구 덕흥마을 세광학교 주변, 남구 진월동 포도원교회 주변, 북구 용두중학교 주변, 광산구 운남동 마지초교 주변 등의 도로가 개설·정비될 예정이다.

이달 2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했던 5·18 기념일 대중교통 무

료 지원사업 예산은 3억2천만원 전액 부활됐다.

광주김치축제 8억원, 광주식품대전 2억1천만원, 세계인권도시포럼 민간 위탁금 5억5천만원 등 예산도 살아났다.

'선지출 후보고' 논란을 빚었던 광주FC의 추가 지원 예산 10억6천만원 역시 예결위에서 복원됐다.

공공기관 현장 대화 행사에서 시장 질문 제한 지적을 만들어 논란을 빚었던 광주시 전략추진단의 예산도 일부 되살렸다.

상임위에서는 운영비 2억8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으나 예결위에서 차 없는 거리 예산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활시켰다.

시의회는 13일 본회의에서 내년 본예산안을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변은진기자

도, 내년 학교급식 지원 준비 '착착'

시군·영양교사·공급업체 간담회...식재료 관리 안내

전남도는 12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2025년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해 식중독 발생 예방법과 개선된 급식 시스템 등을 안내했다.

간담회는 시·군, 영양교사, 공급업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재료 위생 교육과 친환경 급식 조달 시스템 개선 안내, 관련 기관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학교급식 식재료 위생관리 교육에선 노회경 동산대학교 교수가 계절별 식중독 발생 원인과 예방법을 설명했다. 겨울철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를 상세히 다루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재료 안을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변은진기자

도 검수 및 보관 요령을 강의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선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시스템의 개선 사항인 보조금 정산, 친환경인증 정보 사용법을 설명했다.

시·군, 영양교사, 공급업체의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2025년 사업 추진 시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박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사업 내용과 시스템을 지속 개선하겠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 영양교사, 공급업체와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깔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